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6. 8.(목) 18:00 < 6.9.(금) 조간 > 배포 2023. 6. 8.(목)

프랑스 녹색 산업법안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우리 기업 보호에 나선다

- 녹색산업, 공급망, 첨단산업 연구개발(R&D) 분야 양국 간 협력 방안 논의
- 항공우주, 디지털 전환 분야로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R&D) 협력 확대·심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6월 8일(목) 윤창현 통상정책국장 주재로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녹색산업, 공급망, 첨단산업 연구개발(R&D)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프랑스는 현재 친환경 산업 전환과 제조업 강화를 위해 녹색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5월 녹색 산업법안을 발의하고, 전기차 보조금 기준 연내 개정, 인허가 기간 단축, 세액 공제 등 15개의 녹색 산업정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는 프랑스가 개정을 추진 중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기존 차량 가격 등 → 탄소발자국 등 환경요소 고려)이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양측은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양국의 공급망 정책 및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한-프랑스 신산업 기술협력 토론회(포럼)'와 공동 연구개발(R&D) 사업을 2014년부터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차기(제8차) 토론회(포럼) 개최 방안 및 올해 연구개발(R&D)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올해는 자율주행, 나노전자 등 기존 6개 연구개발(R&D) 분야 외 항공우주, 디지털 전환 분야 2개를 추가하여 양국 간 연구개발(R&D) 협력을 확대·심화해 가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이상헌 (044-203-5660)
		담당자	서기관	권순심 (044-203-566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프랑스 녹색산업정책 및 녹색산업법안 주요내용**

□ 녹색산업정책 (5.16자 프랑스 경제부 보도자료 내용)

○ **(목표)** 친환경기술 선도국 지위 확보 및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탈탄소화

○ **(이행방안)** 행정절차 촉진·재정 지원·친환경 산업 육성·교육 등

○ **(기대 효과)** CO2가 4.1백만톤 감소되는 **환경적 효과** 및 '30년까지 230억유로 상당 투자 유치와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

○ **(EU 그린딜 산업계획)** '23.3. 발표된 EU 그린딜 산업계획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및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 기반

○ **15개 구체 이행방안**

- **(행정절차 촉진)** △사업부지 확보절차 개선 △공장 설립 환경 승인절차 단축 △국익 프로젝트* 인허가 등 신속 처리 △폐기물 재활용 절차 간소화 등

  * 고용·환경·국가 주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정 프로젝트

- **(재정 지원)** △금융법 개정을 통한 「녹색산업 투자 세액공제」* 신설 △저축·투자 상품 개발 및 출시를 통한 민간 투자재원 조성 등

  *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히트 펌프의 핵심 부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유·무형 자산 투자를 대상으로 25-40% 수준 투자세액공제

- **(친환경 산업 육성)** △**친환경 기업** 라벨 제도 도입 및 **공공조달시 우대** △**공공조달시** 가격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중치** 부여 △**연내 탄소발자국을 고려한 새로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기준 마련** 등

- **(교육)** 엔지니어 등 전문 인력 양성 및 고숙련 현장 인력 배출 확대 등

□ 녹색산업법안

○ 상기 녹색산업정책 이행의 규범정합성 확보를 위해 관련 국내법령(환경법·도시계획법·상법·수용법, 공공조달법 등) 개정 필요사항을 총 19개 항목에 걸쳐 규정

- △순환경제(재활용) 장려 △재산업화 △녹색산업 육성 △공공조달 △자금 지원 등